

LG상사, 오만과 석유화학 합작

ООС와 Sohar 플랜트 건설 계약 ... 경제성 평가에 시공기업 선정

LG상사(대표 하영봉)는 1월4일 오만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 추진 보도에 대한 조희공시 답변에서 “오만 국영기업인 OOC(Oman Oil)와 오만 Sohar 산업단지에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위한 공동개발 계약(JDA: Joint 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 및 시공기업 등 관련기업 선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학저널 2013/01/04>